

보도자료

2021년 5월 13일(목) 12:00 부터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공공전파관리단 공공주파수팀 팀장 선종준 (061) 350-1461

배 포 :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061) 350-132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5월 13~14일 다음 연도 이후의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파수의 이용목적, 공급 필요성 등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진행한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전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주파수 수요를 받아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본 간담회에서는 금년에 신규 이용계획을 제출한 26개 기관 중 적정성 조사·분석의 방향 설정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CA는 이번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2022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KCA는 「전파법」 제18조의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서, 작년 총 36건의 공공용 주파수 신규 수요에 대하여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9.13GHz폭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해상 및 항공관제, 드론탐지, 재난대응 및 치안 등의 용도로 공급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하며 진행할 예정이다.